

〈일반논문〉

## 1620~1627년 조선의 遼民 인식과 송환론\*

우 경 섭\*\*

〈목차〉

- I. 머리말
- II. 광해군 말 요민 유입과 송환론의 제기
- III. 인조반정 직후 요민의 작폐와 정묘호란
- IV. 맺음말

[국문초록]

1619년 사르후 전투 이후 본격화된 후금의 서진으로 말미암아, 요하 유역 漢인들이 대거 압록강을 넘어 조선 영토로 피난하면서 요민 문제가 시작되었다. 1621년 후금의 瀋陽·遼陽 점령 및 1622년 毛文龍의 東江鎮 설치로 급격히 증가한 요민의 숫자는 순식간에 2만을 넘어 1623년 인조반정 무렵 10만, 1627년 정묘호란 직전에는 20~30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숫자를 그대로 믿기란 쉽지 않지만, 적어도 10만 명에 가까운 한인들이 평안도로 유입된 정황은 대략 확신할 수 있을 듯하다.

조선 조정은 요민들이 후금과 내통하거나 후금의 월경 침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평안도 백성들에 대한 침략 및 굶주림으로 인한 소요를 우려하며, 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7S1A5A2A0 1024459) 및 인하대학교의 지원(67880-01)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입 초기부터 이들을 산동성 登州로 송환하는 방침을 정하고 명 조정과 협의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명 조정 역시 자국민인 요민을 데려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여, 감군 梁之垣과 조사 姜曰光의 파견 때 송환을 성사시킬 기회가 두 차례 있었다. 그러나 요민을 기반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유지하려던 모문룡의 방해, 그리고 동강진의 전략적 가치를 증시하고 요민 귀환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했던 명 조정의 복잡한 계산 속에서, 정묘호란 이전 요민의 송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주제어

요민(遼民), 모문룡(毛文龍), 동강진(東江鎭), 평안도(平安道), 송환론(送還論)

## I. 머리말

17세기 초 만주족의 흥기 이후 정묘·병자호란을 거쳐 명청교체에 이르는 동아시아 격변의 시기에, 조선과 대륙 사이에 대규모 이주민들이 출현했다. 수십 만의 조선인들이 전쟁 포로가 되어 만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자발적 의지에 따라 후금(청)에 귀부했다. 반대로 적지않은 수의 漢人들도 조선으로 건너왔는데, 그들 명나라 출신 이주민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임진왜란 종료 후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았던 잔류 명군과 그 후예들, 둘째는 1620~30년대 후금의 침공을 피해 압록강을 건너 평안도로 이주한 요동 출신 난민들, 셋째는 1645년 봉림대군의 귀환에 동행했던 이른바 隨龍八姓 등 청의 입관 전후 망명해 온 사대부들이다.<sup>1)</sup>

이 글은 위의 세 부류 가운데 두 번째인 요동 난민들 즉 遼民에 관한

연구이다. 사료상 이들은 후금의 요동 진출이 본격화하던 1620년에 출현하여 1637년 조·청 연합군에 의해 가도가 함락되기까지 17년간 존재했던 집단이었다.<sup>2)</sup> 避亂唐人·假撻·剃漢·漢賊 등으로도 칭해진 이들은 毛文龍이 세운 東江鎮에 의지하여 주로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 지금의 평안북도 일대에 머물며 조선인들과 갈등을 빚었고, 조선과 명·후금간 군사 및 외교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약 30만 명까지 추산되는 이들의 규모는 명청교체기 조선으로 건너온 세 부류의 한인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요민의 존재는 17세기 전반 조·명, 조·청 관계사를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 일찍부터 주목되었다. 모문룡 연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田川孝三은 1619년 사르후 전투 이후 1633년 孔有德 등의 후금 귀순에 이르는 시기까지 모문룡과 동강진의 활동을 조망하는 가운데, 요민의 작폐 및 이로 인한 조선과 명의 갈등을 개괄하였다.<sup>3)</sup> 그리고 한명기는 동아시아의 시야에서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조선의 대외관계 및 그 정치사상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가운데, 모문룡과 요민의 작폐 및 ‘청북포기론’을 비롯한 조선의 대책을 상세히 규명하였다.<sup>4)</sup> 또한 김종원은 주로 후금(청)의 관점에서 요민 문제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주목하여, 1620년대 요민의 획득과 이탈이 후금(청)의 지배체제 확립과 관련된 핵심 사안이었음을 해명하였다.<sup>5)</sup>

- 
- 1) 劉春蘭, 「明·清交替期 漢族의 朝鮮移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7, 37~64쪽;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103~114쪽.
  - 2) 遼民은 원래 ‘요하 유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1620년 이후 조선에서는 주로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피난한 요하 유역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 3) 田川孝三, 『毛文龍と朝鮮との關係について』, 彙文堂書店, 1932, 80~87쪽.
  - 4)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280~286, 374~400쪽;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46~53, 97~102쪽.

근래에 들어서는 중국사 연구자들에 의해 모문룡과 동강진의 경제 활동에 관한 심화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병철은 산둥 지역과의 연계 아래 전개되었던 모문룡의 해상 상업활동에 주목했고, 서원익은 동강진의 입장을 담은 『東江疏揭塘報節抄』를 활용하여 둔전과 무역을 통한 동강진의 경제적 기반을 검토했다.<sup>6)</sup>

아울러 한국사 분야에서는 요민에 보다 집중한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김덕진은 사르후 전투부터 인조 말년까지 요민의 유입 현황과 조선의 쇄환 및 정착 정책을 다루었고, 스즈키 카이·조일수·허태구 등은 인조대 대명·대후금(청) 인식과 외교 정책이라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동강진 문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요민 토벌론까지 제기되었던 당시의 정치·사상적 맥락을 깊이있게 분석하였다.<sup>7)</sup>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17세기 전반 조선왕조가 직면했던 정치·외교·군사·경제적 난관의 핵심에 명나라 출신 전쟁 난민인 요민 문제가 자리잡고 있음은 충분히 설명된 듯하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들이 모문룡과 동강진에 주된 초점을 맞춘 나머지, 요민 자체에 대한 조선의 인식 및 대응에 관해서는 아직 덧붙일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 글은 조선과 명·후금 사이 국제관계사의 시각에서 벗어나, ‘난민의 역사’라는 입장에서 요민 문제를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5)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혜안, 1999, 59~85쪽.

6) 정병철, 「明末 遼東 沿海 일대의 海上勢力」, 『명청사연구』 23, 명청사학회, 2005; 서원익, 「明清交替期 東江鎭의 위상과 경제적 기반」, 『명청사연구』 53, 명청사학회, 2020.

7) 김덕진, 「17세기 전반 후금의 요동진출과 요민의 조선이주」, 『역사와 교육』 14, 역사와 교육학회, 2012; 스즈키 카이, 「劉興治와 朝鮮과의 관계에 대하여」, 『만주연구』 19, 만주학회, 2015; 조일수, 「인조대 대중국 외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허태구, 「張晩의 대외정세 인식과 대중국 외교현안 대응」, 『대구사학』 146, 대구사학회, 2022.

를 위해 모문룡의 행정·군사 기구인 동강진과 전쟁 난민 집단인 요민을 가능한 한 분리해 살펴보려 한다. 물론 요민이 기본적으로 동강진의 군사적 보호와 경제적 후원에 의지하여 조선에 유입·정착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던 차별성과 긴장감에 세심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민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대책 역시 대 동강진 정책과 구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명에 대한 사대 관계와 再造之恩의 관념 속에서, 조선 조정이 명의 공식 기구인 동강진을 군사·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가부간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었다. 반면 난민 집단인 요민에 대한 구휼은 동강진 지원과 엄연히 다른 문제였다. 불법으로 월경하여 조선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공권력에 도전했던 그들의 행태는 법적제 그리고 이념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요민으로 인한 이같은 당혹감은 명나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중화질서의 이념에 비추어 본다면, 天朝의 백성들이 藩國으로 피난하여 작폐하던 요민의 사례는 대단히 임시적인 상황이었기에,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공식적 해결책을 강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요컨대 조선과 명 양국 모두 동강진에 대해서는 중화질서 수호의 당위 아래 그 지원의 방법적 타당성을 논의했다면, 요민 문제란 비법적 피난민의 월경과 작폐, 구휼과 단속에 관한 현실적 사안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1620~1637년 평안도에 유입된 요동 난민의 실상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책을 시기에 따라 크게 송환론과 토별론 두 단계로 구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요민이 조선에 건너오기 시작한 1620년부터 정묘호란이 일어난 1627년까지 요민의 출현과 정착 과정 및 登州 送還論을 중심으로 한 조선 조정의 대응을 광해군과 인조 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그

리고 정묘호란 이후 1637년 가도 함락까지 동강진과 요민의 혼란과 반역, 그리고 討伐論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대책은 별도의 글을 통해 논할 예정이다.

## II. 광해군 말 요민 유입과 송환론의 제기

1616년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는 1618년 이른바 七大恨을 내세워 명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여 명의 동북방 최전선인 撫順과 清河를 점령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19년 명청교체의 분수령이라 평가되는 사르후 전투에서 조·명 연합군을 격파한 뒤, 요하를 건너 본격적인 서진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요하 일대에서 대규모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

요하 유역 한인들이 후금 치하에서 벗어나 난민의 길을 선택한 까닭은 누르하치의 강경한 탄압정책 때문이었다. 후금군은 점령지의 한인들에게 치발을 강요한 뒤 노예로 삼거나 학살했고, 한인들은 후금에 맞서 싸우던지 아니면 화북 또는 요녕·산둥 해안의 섬이나 조선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약 100만 명의 한인들이 고향을 떠나 명의 내지로 피난했다고 추산된다.<sup>8)</sup>

조선에서는 명에 대한 후금의 공격이 개시된 직후부터 요동 한인의 남하를 예상하고 있었다. 1618년(광해군 10) 6월 광해군은 한흥군 이경전을 요동경략 楊鎬에게 파견하며, 명에서 요구하는 조선군 파병 문제와 더불어

8) 1620년대 후금의 요동 한인들에 대한 정책 및 이로 인한 화북사회의 혼란은 다음 연구들을 참조할 것. 김두현, 「遼東支配期 누르하치의 對漢人政策」, 『동양사학연구』 25, 동양사학회, 1987; 정병철, 『天崩地裂의 시대, 明末清初의 華北社會』,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62~77쪽.

어 조선에 유입될지 모르는 한인 피난민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게 하였다. 명과 후금의 우열이 판가름나기 전에 이미 요동 난민의 출현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방비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광해군은 사르후 전투가 조명 연합군의 참패로 끝난 뒤 찬хва사 이시발을 소견한 자리에서 요동 한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올 경우 받아주지 않을 수 없음을 전제하고, 후금이 그들을 빌미로 삼아 조선을 침공할 것에 대비하라고 명하였다.<sup>9)</sup>

광해군의 우려대로, 1620년(광해군 12) 5월 최초의 요민이라 할 수 있는 40여 명의 한인들이 압록강을 건너왔다. 평안감사 우치적은 이들을 일단 압록강 가운데의 섬에 유치했고, 조정에서는 신중한 논의 끝에 이들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후금군이 한인으로 변장하고 조선에 잠입할 가능성, 그리고 도주 한인들에 대한 소유권을 내세운 후금의 트집이 우려되었지만, 한인 수용을 거부할 경우 초래할 명의 의심이 더욱 두려웠기에 再造之恩의 명분 아래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었다.<sup>10)</sup>

이후 후금은 1621년(광해군 13) 3월 요동의 심장부 瀋陽과 遼陽을 함락했다. 그리고 요하를 건너 서쪽으로 공세를 지속함과 동시에, 조선과 명의 교통로였던 東八站 방면으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후금에 쫓긴 한인들이 압록강변에 대거 몰려들었고, 요민 문제가 조선과 명 조정 간 핵심 현안으로 대두하였다.<sup>11)</sup> 명의 기록에 의하면, 1621년 5월 무렵 조선으로 건너간 요민의 숫자는 이미 2만 명을 상회했다. 요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명은 그들을 임시로 조선에 맡긴 뒤, 후금을 평정하는 대로 귀환시킨다는 방침이었다.<sup>12)</sup>

9) 『광해군일기』 권129, 광해군 10년 6월 25일(임오); 권147, 광해군 11년 12월 25일(갑술).

10) 『광해군일기』 권152, 광해군 12년 5월 23일(경자).

11) 『광해군일기』 권165, 광해군 13년 5월 12일(계축); 권166, 광해군 13년 6월 3일(계유).

총 인구 200~300만 명에 불과하던 후금의 입장에서 보자면, 명과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을 뒷받침할 노동력의 확보가 절실했다. 따라서 후금은 한인들의 도망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다.<sup>13)</sup> 특히 적국인 명으로 도주한 한인들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조선의 요민 수용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누르하치는 심양·요양 함락 직후 광해군에게 서신을 보내 조선으로 건너간 요민들을 후금으로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네가 예전처럼 명을 돕고자 한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쟁을 피해 鎭江을 건너 달아난 요민을 모두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 요동의 관민들 모두 치발을 하고 귀순했으며, 항복한 관료들에게 원래의 직책을 돌려주었다. 네가 만약 우리에게 귀순한 요민을 받아들여 숨겨놓고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이는 명나라를 돕는 것이니, 나중에 우리를 원망하지 말라.<sup>14)</sup>

1621년 5월 15일 요민을 추격하는 후금군이 처음으로 압록강을 넘어 조선 영토를 침범한 사건이 일어났다. 배를 타고 의주 玉江堡와 水口堡 인근에 상륙한 후금군이 한인 100여 명을 살해하고 돌아간 이른바 玉江之變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大金皇帝’라 칭한 서한을 의주의 변신들에

12) 『명희종실록』 권10, 천계 원년 5월 12일(계축) “其民逃入朝鮮者, 亦不下二萬人. 朝鮮各給糧安插, 遣使相聞.”; “兵部覆議言, 四衛軍民, 此逃竄, 不忘本朝, 至有持挺擊, 殺降將敵血, 以候大兵. 國家亦何惜世及之典, 不以鼓倡義之心相應行? …… 其逃難朝鮮餘衆, 暫行彼處安插, 事平招還. 其朝鮮國王, 仍俟滅奴之後, 另行請赦加賚.”

13) 김종원, 앞의 책, 70~84쪽.

14) 『청태조실록』 권7, 천명 6년 3월 21일(계해) “如爾仍欲助明則已, 不然, 凡遼人之避兵渡鎭江而竄者, 可盡反之. 今遼東官民皆已薙髮歸順, 其降順各官, 悉還原職, 爾若納我已附遼民, 匿而不還, 惟明是助, 異日勿我怨也.”



게 보내 요민 색출과 송환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경우 침공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sup>15)</sup>

한편 명 조정은 사르후 패전의 책임을 물어 요동경략 楊鎬를 熊廷弼로 교체했다.<sup>16)</sup> 옹정필은 후금 방어의 전략으로 이른바 三方布置策을 제시했다. 요서 지역의 육군, 天津 및 登州·萊州의 수군, 그리고 조선군 등 세 방면에서 후금을 견제·압박한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명의 후금 방어의 기본 전략이 되었던 이 계획에 따르면, 명과 조선을 육로로 연결할 뿐 아니라 등래와 요양을 수로로 이어주는 압록강 하구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따라서 옹정필은 압록강 하구 양안의 鎮江 및 의주에 金復道를 신설하고, 육군 1만 명 및 수군 2,700명 등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려 했다. 실제 배치된 명군의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조선 영토인 의주에 명의 군사기지를 두려는 의도는 분명했다.<sup>17)</sup>

뒤이어 요양 함락 직후 요동순무 王化貞은 요동도사 모문룡을 진강으로 파견했다. 요양에 주둔하다 성이 함락되자 旅順으로 탈출해 머물던 모문룡은 22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해로를 통해 평안도 용천에 상륙했다. 그리고 진강을 습격하여 후금군 수십 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다. 1621년 7

15) 1621년 5월 후금의 玉江 침범 및 서한에 관해서는 장정수, 「17세기 전반 朝鮮과 後金·淸의 國交 수립 과정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0, 244~250쪽 참조.

16) 『명신종실록』 권582, 만력 47년 6월 19일(경오) “奴酋陷我城堡以來，目中已無中國。近如朝鮮咨報所云，輒敢建國改元稱朕，皆由楊鎬輕躁寡謀，取侮小夷。悠爾秋高馬肥，勢必深入，不知何以待之。惟願立點新推經略熊廷弼，賜之尙方，庶可少釋東顧之憂。”

17) 『명신종실록』 권587, 만력 47년 10월 9일(무오) “巡撫遼東周永春言，鎮江爲朝鮮入貢必由之路，又登萊之咽喉，而金復四衛之門戶也。鎮江一失，朝鮮必亡，海道必絕，乞勅下兵部，議添兵將以固東藩.”; 권588, 만력 47년 11월 24일(계묘) “經略遼東熊廷弼題，……其在鎮江，當設兵二萬人，裨將七八員，副總兵一員，半割義州，半割鎮江，夾鴨綠而守.”; 『명희종실록』 권3, 태창 원년 11월 7일(경진) “鎮江，東度朝鮮，南通四衛，北連寬饒，此奴賊左窺右闚所必經由之要路也。添設金復道，移駐彼中，據險扼吭，計莫有要于此者.”

월의 이른바 鎭江奇捷이라 불리는 이 전투를 통해 모문룡은 조선과 명 실록에 처음 이름을 남기며 副總兵으로 승진했다.<sup>18)</sup> 그러나 옹정필은 모문룡의 돌발적 행동이 삼방포치책이라는 큰 전략에 방해됨을 지적하며, ‘놀라운 승전(奇捷)’이 아니라 ‘놀라운 재앙(奇禍)’이라 비판했다.<sup>19)</sup> 이때부터 명 조정에서도 정상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난 모문룡의 독단을 두고서 염려와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모문룡의 갑작스런 출현은 후금을 자극함과 동시에 요민이 급증하게 된 계기를 이루었다. 진강기첩 직후 후금은 우선 5천 명의 군사를 보내 진강 연해의 한인들을 내지로 옮겨 확보한 뒤,<sup>20)</sup> 1621년 12월 조선 국경을 넘어 용천 등 3개 고을을 습격했다.<sup>21)</sup> 이른바 林畔之變이라 칭해지는 이 사건 이후 모문룡과 요민을 추격하는 후금군이 국경을 넘는 일이 빈발했다.<sup>22)</sup> 하지만 후금의 탄압을 피해 모문룡에 의지하려는 요민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고, 의주·용천을 넘어 철산 일대까지 들어왔다. 조선 조정은 이들로 인해 후금의 침공이 뒤따를 것을 예상하며 모문룡에게 단속을 요구

18) 『광해군일기』 권167, 광해군 13년 7월 25일(갑자), 7월 26일(을축); 『명희종실록』 권13, 천계 원년 8월 7일(병자).

19) 『명희종실록』 권14, 천계 원년 9월 15일(계축) “熊廷弼言, 三方兵力未集, 而文龍發之太早, 致使奴恨遼人, 焚戮幾盡, 灰東山之心, 厚南衛之毒, 寒朝鮮之膽, 奪西河之氣, 亂三方並進之本謀, 誤專遣聯絡之成算, 目爲奇捷, 乃奇禍耳.”

20) 『청태조실록』 권8, 천명 6년 7월 20일(기미) “鎭江城中軍陳良策, 與居民潛通於明將毛文龍. …… 上聞之, 命四貝勒及二貝勒阿敏, 率總兵副參等官, 引兵三千人, 遷鎭江沿海居民於內地, 命大貝勒代善三貝勒莽古爾泰, 率兵二千人, 遷金州民於復州.”

21) 『광해군일기』 권172, 광해군 13년 12월 21일(무자); 『청태조실록』 권8, 천명 6년 11월 1일(을묘) “上命二貝勒阿敏, 統兵五千, 渡鎭江, 入朝鮮境, 攻勦明將毛文龍. 二貝勒至鎭江, 遂乘夜入朝鮮, 斬遊擊劉姓者, 及兵一千五百級. 文龍僅以身免, 乃班師.”

22) 『광해군일기』 권174, 광해군 14년 2월 27일(계사) “時奴賊自林畔捲回之後, 雖專意於廣寧, 尙在遼城, 出沒無常. 王意欲遣譯, 詰責犯境之罪, 兼爲探問廣寧之事.”

했지만, 소수의 오합지졸을 거느린 모문룡은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sup>23)</sup>

이때까지만 해도 모문룡은 요민을 주로 假獮 또는 荊漢이라 칭하며, 자신이 거느린 군병들과 전혀 다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요양성 탈출 당시 대다수 관리와 백성들이 후금에 투항한 것을 목도했던 모문룡은 조선측 파트너였던 용천부사 이상길에게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獮賊(후금군)이 요양성을 함락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 이하 요민들이 老酋(누르하치)에게 내응하여 성문을 열고 적을 맞이한 결과 요양성이 함락된 것입니다. 요민은 天朝에 대하여 더없는 원수입니다.<sup>24)</sup>

그러나 후금의 반격을 받아 혈혈단신으로 도주한 모문룡은 이미 조선에 건너와 있던 2만 명에 가까운 요민을 결집시켜 자신의 군사적·경제적 기반으로 삼을 필요를 절감했다. 요민들 역시 자신들을 보호하고 대변해 줄 존재로서 모문룡에 의탁하면서,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여 평안도 일대를 횡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광해군은 1621년 말부터 모문룡에게 요민을 이끌고 평안도 앞바다의 섬으로 들어가라고 설득했다.<sup>25)</sup> 그러나 모문룡은 이를 거절하고 계속 내지에 머물며 후금을 자극했고, 요민은 청천강을 남하하여 경기·강원 일대까지 몰려들었다. 조선 조정은 이들을 방치할 경우 온 나라에 난민이 가득할 것을 걱정하며,<sup>26)</sup> 왕조의 존망이 후금보다 요민에 달려있다고 심

23) 『광해군일기』 권169, 광해군 13년 9월 18일(정사), 9월 26일(갑자).

24) 『광해군일기』 권170, 광해군 13년 10월 30일(정유) “摠兵乃辟左右而言曰, 非獮賊陷遼城也. 遼人將官以下, 爲老酋內應, 開門迎賊, 竟使遼城見陷. 遼民之於天朝, 莫大仇讐也. 貴國與遼左接隣, 豈不聞遼民之事乎?”

25) 『광해군일기』 권172, 광해군 13년 12월 5일(임신), 12월 18일(을유); 권173, 광해군 14년 1월 4일(경자).

각하게 인식했다.

오늘날 나랏일을 보건대, 성패와 존망이 적(후금)이 아니라 假獮에 달려 있습니다. 후금의 길잡이가 되어 대응하는 것이 첫째이며,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둘째이며, 바다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여 도망가 숨었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모여서 도적질할 걱정이 없지 않으니, 그것이 셋째입니다. 작년에 피난한 한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있는지 낱낱이 장부에 기재하여, 監軍이 나온 뒤 보고하여 알려주라는 뜻을 이미 원수 이하 여러 신하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sup>27)</sup>

요민에 대한 조선의 근심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체발한 한인과 만주인의 식별이 어려우며, 그들을 수용할 경우 후금과 내통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평안도 백성들을 침략하여 생업을 방해한다는 점, 셋째, 식량 부족으로 인해 소요와 반란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별다른 준비없이 고향을 등진 요민들은 처음에는 구걸과 유랑으로 연명했지만, 모문룡의 주둔과 동강진 개설 이후 점차 평안도 조선인들을 약탈하고 구축하기 시작했다.<sup>28)</sup>

26) 『광해군일기』 권175, 광해군 14년 3월 26일(임술); 권176, 광해군 14년 4월 4일(기사), 4월 5일(경오).

27) 『광해군일기』 권178, 광해군 14년 6월 27일(신묘) “試觀今日國事, 成敗存亡, 不於此賊, 而在於假獮, 嚮導應內, 一也, 侵掠我國, 使生民不得耕作, 二也, 厭其海行而逃匿, 所食既絕, 不無聚盜之患, 三也. 上年避兵漢人, 勿論男女老弱, 某州幾名, 一一成籍, 待監軍出來, 使之報知之意, 已言於元帥以下諸臣處矣.”

28) 모문룡의 동강진 개설 및 가도 입도의 정확한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한데, 이에 관해서는 田川孝三, 앞의 책, 52쪽 참조. 다만 『명희종실록』의 다음 기사에 따르면 동강진이라는 명칭은 1622년 6월 무렵 이미 사용되었고, 가도에는 11월 무렵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명희종실록』 권23, 천계 2년 6월 30일(갑오) “經略遼東王在晉, 以毛文龍孤懸海外, 宜速接濟疏言, 海上孤臣潛師久住, 當發餉

후금 방어를 위해 조선의 협력이 절실했던 명 조정에서도 모문룡과 요민 문제로 인한 조선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621년 8월 옹정필의 추천으로 조선 사정에 밝은 등주 출신 梁之垣을 감군으로 삼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sup>29)</sup> 파견의 명분은 사르후 전투에서 전사한 조선군 유족에게 황제의 위로금은 3만 냥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후금 전쟁에 동원할 조선의 군사 지원을 요구하고, 아울러 요민 단속을 약속하며 조선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sup>30)</sup> 이에 두 달 전 임반지변으로 크게 놀랐던 광해군은 조정에서 물러나 있던 이정구를 재기용하여 접반사로 삼고, 명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하였다.<sup>31)</sup>

양지원은 60여 척의 배에 4천 명의 군사를 싣고 1622년(광해군 14) 3월 초 평안도 용천 미곶(彌串)에 도착했다.<sup>32)</sup> 그리고 4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서울에 체류하며, 재조지은을 내세워 병력·군량·전

遣兵，以資犄角，閩兵三千，皆習於驚濤駭浪之中，當速遣渡海，接濟毛文龍。再於登津發糧二十萬豆十萬，買布三萬疋，隨解東江，庶可以壯聲援而潛搗巢。”

29) 『명희종실록』 권13, 천계 원년 8월 1일(경오) “三方建置須聯合朝鮮，宜得一智略臣，前往該國，督發江上之師，就令權駐義州，招募逃附，則我兵與麗兵聲勢相倚，與登萊音息時通，斯於援助有濟。……宜亟發勅諭，慰勞該國君臣，使盡發八道之兵，連營江上以張其勢。又亟發詔書，憫恤遼東官軍士民之逃鮮者，招集團練以成一旅，與麗兵合勢。又亟發銀六萬兩，半犒朝鮮之師，半恤我逃難之衆。……之垣才略膽氣，本足沖長風破萬里浪，又生長海濱，習知鮮遼形勝要害與民情土俗，可使也。”

30) 『명희종실록』 권13, 천계 원년 8월 13일(임오) “宣諭朝鮮勅書，發道臣梁之垣。皇帝勅諭朝鮮國王，……遼瀋繼沒，爾復陳兵聲援，慰集流移，邊臣奏聞，朕甚嘉焉。茲特遣官齎捧璽書，用褒勞勩，并御前所發賞功銀三萬兩，給付兩國，量行賚犒。其沿江一帶，我軍民瘡痍奔命留滯未還者，令差去官擬定資給，不以煩爾。其差官帶有兵從，令其聯絡聲勢，相機規圖，約戢部伍，不致侵擾。”

31) 『광해군일기』 권174, 광해군 14년 2월 13일(기묘).

32) 양지원의 출사 경위 및 과정에 대해서는 박현규의 논문에 상세히 밝혀진 바 있다. 박현규, 「명 監軍 梁之垣 朝鮮出使 시기 해상활동에 관한 분석」, 『한중인문학연구』 39, 한중인문학회, 2013.

선의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입한 배에 요민을 실어 등주로 보내면 귀국도 깨끗해질 것’이라는 밀계를 광해군에게 올렸다.<sup>33)</sup> 군사적 협력에 대한 대가로 요민을 데려가겠다는 뜻이었다.

광해군은 양지원의 병력·군량·전선 등 세 가지 요구에 대하여 병력 지원은 유보하고 곡식은 산동에서 구입해 공급하는 대신, 선박의 경우 ‘명군을 싣고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민을 태워 남쪽으로 간다’는 전제 아래 서둘러 제공하기로 결정했다.<sup>34)</sup> 이처럼 선박 요구에만 적극적으로 호응한 까닭은 오직 요민 송환 때문이었고, 양지원은 조선의 그러한 약점을 잘 간파한 것이었다. 따라서 두 달이 넘는 협상 끝에 요민을 태우기 위한 수송선 60척 및 전선 10척, 그리고 양지원이 타고 갈 대선 2척 등 총 72척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배를 건조하는 기간과 비용이었다. 72척의 배를 새로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때를 미루다가는 요민의 등주 송환이 무산될 염려도 있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강화도 천도를 염두에 두고 마련해 두었던 舟師廳 소속의 배를 우선 넘겨주었다. 양지원은 수송선 60척에 대한 비용으로 은 3천 냥을 조선에 내놓았지만, 그 배들을 다시 1척 당 1백 냥씩 받고 요민들에게 되팔아 6천 냥의 이문을 남겼고, 게다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6만 냥의 은을 징색하여 7월 무렵 귀국길에 올랐다. 양지원의 귀국 후 명 조정은 광해군에게 칙서와 예물을 내렸는데, 그 명분 중 하나가 요민을 수용해 준 대가였다.<sup>35)</sup>

요민 송환을 위한 조·명 간 첫 번째 협상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당시

33) 『광해군일기』 권176, 광해군 14년 4월 22일(정해), 4월 24일(기축).

34) 『광해군일기』 권177, 광해군 14년 5월 1일(병신), 5월 2일(정유), 5월 15일(경술).

35) 『광해군일기』 권181, 광해군 14년 9월 18일(신해); 권183, 광해군 14년 11월 8일(경자). 박현규는 이때 양지원과 함께 약 1천 명의 요민이 등주로 송환되었다고 추정했는데, 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박현규, 앞의 논문, 373~378쪽.

명 조정은 요민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인식했고, 어사 夏之令과 태학사 葉向高 등이 모문룡의 철군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천계제를 비롯한 중신들은 이제 10만 명을 헤아리는 조선의 요민을 내지로 데려오기보다는 후금과의 전투에 활용하는 편을 선호했고, 모문룡의 고군분투에 대한 신뢰 역시 아직까지 적지 않았다.<sup>36)</sup> 또한 조선이 후금 편에 서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까지 기대하면서,<sup>37)</sup> 모문룡의 철군과 요민 송환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양지원의 귀국 직후인 1622년 8월 광해군이 후금에 ‘을 겨울 모문룡이 해도로 옮길 것’이라 확인하고, 11월 모문룡이 별안간 요민을 이끌고 철산 앞바다의 가도로 옮겨갔다는 사실이다.<sup>38)</sup> 아마 명 조정이 요민으로 말미암은 양국 간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지원을 통해 조선이 요구한 등주 송환이 아닌 가도 입도를 대상으로 제시하여 관철시킨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36) 『명희종실록』 권24, 천계 2년 7월 18일(임자) “承宗又奏請安插遼民言, 自有遼事來, 無一人一事不爲遼人患, …… 朝鮮十餘萬, 亦當令毛文龍, 選其強者爲兵, 而安集其重, 蓋安遼人卽所以安天下也.”; 권29, 천계 2년 12월 22일(계미) “先是, 御史夏之令有疏言, 毛文龍孤軍客寄海外, 難于急濟, 議當撤回. …… 上謂, 文龍宣力海外, 豈可輕貶?”; “大學士葉向高等揭救言, 毛文龍在海外, 兵力單弱, 接濟甚難, 朝鮮之情形, 又不可知. …… 文龍有疏亦云, 必得兵四萬而後可以有爲, 臣等度今日之財力, 必不能辦此, 然則三方布置之說, 竟未易行. 之令之貶抑文龍, 雖爲太過, 而其深憂遠慮, 亦不可謂無見也. …… 上以進止機宜, 已有旨聽毛文龍自酌, 且多官議論, 俱令牽制奴酋. 夏之令如何逞臆妄言姑不究?”

37) 『명희종실록』 권30, 천계 3년 1월 24일(을묘) “廣東道御史劉廷宜以按秦陞辭, 上言五事. …… 一曰主持疆場大計. 言毛文龍之在鮮, 以制奴之死命雖不足, 以禁鮮之不合奴也則有餘. 若今日議接濟, 明日議撤回, 未免灰任事之心.”

38) 『광해군일기』 권180, 광해군 14년 8월 8일(신미); 권183, 광해군 14년 11월 11일(계묘).

### Ⅲ. 인조반정 직후 요민의 작폐와 정묘호란

모문룡이 가도에 자리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623년 3월,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인조 정권은 광해군이 명을 배신하고 후금과 내통했다는 것을 반정의 명분으로 삼았던 만큼, 모문룡과 합세하여 후금을 정벌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표방했다. 하지만 모문룡의 허장성세를 잘 알고 있었고, 등주 송환을 기본으로 하는 요민 대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sup>39)</sup> 다만 인조의 즉위를 난역이라 규정하고 그 향배를 의심하던 명 조정에 요민의 작폐와 송환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sup>40)</sup>

당시 평안도 일대는 후금의 흥기 이후 빈번하게 왕래하는 명 사신 접대 및 군사시설 정비와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동원으로 인해 사실상 준전 시체제에 놓여 있었다.<sup>41)</sup> 게다가 ‘상국’의 장수인 모문룡에 의지한 요민까지 급증하면서, 이 무렵 평안도의 풍경은 흡사 요동과 다름없었다고 한다. 이에 요민 때문에 도탄에 빠진 평안도 백성들의 진상을 견감하라는 대비의 하교가 내려지기도 하였다.<sup>42)</sup>

1624년(인조 2) 무렵 시작된 모문룡의 둔전 설치에 요민들이 평안도에 눌러앉으며 모문룡 휘하 하나의 집단으로 조직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인조는 명의 의심을 거두고 책봉을 받기 위해 모문룡의 도움이 절실했

39) 『승정원일기』, 인조 원년 6월 25일(갑신).

40) 『명희종실록』 권34, 천계 3년 5월 6일(을미) “朝鮮內變, 國王李璵, 一旦爲姪所廢, 彼先自亂, 安能助我? 況無君之人, 豈肯倡義効順? 且爲倭壻與奴連, 若舉朝鮮, 歸順奴酋, 毛文龍必難久居, 牽制無人, 奴得安, 意西來, 無復東顧之憂矣.”; 천계 3년 5월 19일(무신) “今日大事, 莫過於制禦奴酋, 乃朝鮮亂逆, 偏與此時會合, 我中國得計則安, 失計則危.”

41) 권내현, 『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2004, 39~61쪽.

42) 『인조실록』 권1, 인조 원년 3월 23일(계축); 권2, 인조 원년 6월 12일(신미).



고, 실제로 모문룡은 인조의 찬탈을 토죄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던 명 조정에 반정의 정당성을 적극 해명했다.<sup>43)</sup> 이런 즈음에 인조는 문안사 남이 공을 가도에 파견하여 동강진의 둔전과 염전 경영을 정식으로 허락했다. 이에 선천과 철산 일대 16개 섬에서 둔전 개간이 시작되었고, 별다른 생존 대책이 없었던 요민들이 앞다투어 투탁하면서 동강진의 통제를 받는 군사·경제 조직으로 재편될 수 있었다.<sup>44)</sup>

이에 더하여 1624년 1월 평안병사 이괄이 일으킨 반란은 난민 집단에 불과하던 요민이 평안도 일대를 점거하고 주인 행세를 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를 이루었다. 후금의 침략에 대비한 평안도 정예 병력들이 대거 반란에 참여하거나 진압에 동원되면서, 불과 한 달도 안되는 기간만에 사실상 궤멸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더구나 난이 끝난 뒤에도 반란의 재발을 염려한 조정의 의심과 감시로 인해, 평안도 지역에서는 치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군사력조차 재건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초래된 군사·행정적 공백 속에서 요민의 유입 및 정착이 가속되었고, 그 지역 조선인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sup>45)</sup>

하지만 조선과 명 조정은 요민을 명의 내지로 돌려보낸다는 기본 방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후금과 대치가 이어지고 모문룡의 위세

43) 『명희종실록』 권37, 천계 3년 8월 19일(정축) “毛文龍則直謂，瑯實背德，倥改其行，誅黨惡助叛之臣，而赤心天朝矣。臣等惟亂臣賊子誅不容朝，而况皇上爲天之吏奉天以行，遣樓船下瀨之師，明示以君臣大分萬古綱常，盡執篡逆之徒而誅之，此正理也，亦正法也。”

44) 『인조실록』 권1, 인조 원년 3월 17일(정미); 『江漢集』 권5, 「移弘文館論東江狀—並東江志」(天啓)四年, 分兵入諸島, 初置屯田. 宣川府爲島者六, 而身彌最大, 身彌者, 雲從島也. 鐵山府爲島者十, 而皮島最大, 皮島者, 東江鎮也. 自文龍屯田以來, 十六島耜者相望, 虜人惡之, 襲文龍於島中, 燒其粟.”

45) 『인조실록』 권5, 인조 2년 3월 20일(갑술). 이괄의 난으로 인한 평안도 지역의 군사적 공백 및 요민의 유입과 작폐에 관해서는 한명기, 『역사평설 병자호란』 1, 푸른역사, 2013, 104~113쪽 참조.

가 등등하던 상황 속에서, 조선이 동강진과 요민 철수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기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인조는 동강진의 군사와 일반 백성 즉 毛兵과 요민을 구분하여, 전투에 유용하지 않은 노약자들을 우선 돌려보내기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모문룡은 후금을 섬멸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며, 요민을 먹여살릴 막대한 양의 식량을 조선에 요구했다.<sup>46)</sup>

인조반정 이후 조선의 지원에 힘입어 동강진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자, 가도를 찾아 압록강을 건너는 요민의 수는 계속 증가했다. 당연히 이들이 먹을 식량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마침 거둬진 가뭄에 이괄의 난까지 겪었던 평안도의 형편으로는 요민을 구제할 방도가 없었고, 조선 조정은 산동에서 쌀을 구입해 동강진으로 보냈지만 굶주린 요민의 소요와 침략은 날로 심해졌다. 의주부윤은 당시의 참상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근래 귀순하는 假獺이 날마다 수없이 건너옵니다. 50~100여 명씩 떼지어 들판에 흩어져 봄 보리의 싹까지 죄다 캐어 먹고,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으면 다투어 뜯어 먹습니다. 민가를 약탈하고 강제로 밥을 지어달라 하는데, 한 백성이 가난하여 음식을 주지 못하자 가달의 시체를 가져다 그 집에 버려두고 때려죽였다 무함하며, 온 마을 사람을 묶어놓고 가산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sup>4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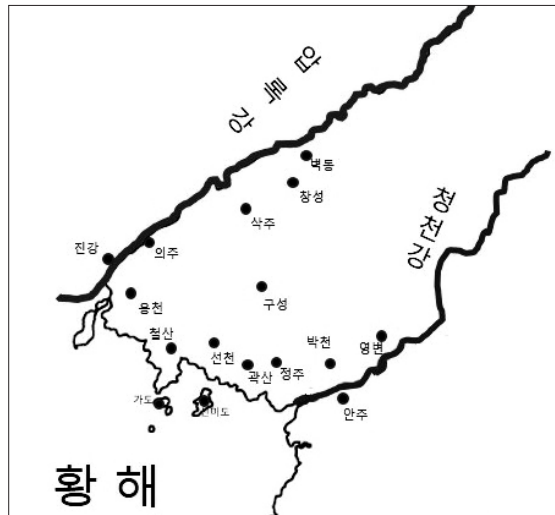
모문룡 역시 겉으로는 노약자의 등주 송환을 승낙했지만, 실제로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던 듯하다.<sup>48)</sup> 오직 조선과 명 조정에서 지원받은 은과

46) 『인조실록』 권4, 인조 2년 1월 7일(임술); 권5, 인조 2년 4월 21일(갑진); 권6, 인조 2년 5월 2일(을묘), 5월 8일(신유).

47) 『인조실록』 권5, 인조 2년 3월 28일(임오) “日歸順假獺, 日日渡來, 不知其幾. 或五十, 或百餘, 成群布野, 春耕麥芽, 盡採而食之, 道遇餓孀, 則爭屠而啖之. 搶掠閭閻, 勒令炊飯, 而有一民貧甚, 不能供饋, 乃持假獺死屍, 棄置其家, 誣稱爲打殺, 盡縛一村之人, 奪取家藏而去云.”

곡식을 독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도를 중심으로 명·조선 그리고 후금까지 연결하는 4각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부를 축적하는데 관심을 두었을 뿐이었다.<sup>49)</sup> 조선 조정은 국부의 유출을 우려하여 조선인 잠상들이 은과 인삼을 가지고 동강진과 무역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모문룡은 동강진 운영과 요민 구제를 위하여 조선과의 무역이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하며 자신의 무역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요민의 굶주림을 조선 탓으로 돌리며, 군량을 보내지 않을 경우 요민들을 내지로 흩어보낼 것이라 겁박했다.<sup>50)</sup>

실제로 1624년 가을 무렵부터 요민들의 점거 지역이 가도를 벗어나 그 대안인 용천·철산을 넘어 선천·곽산·정주 등 청천강 북쪽 유역, 그리



〈지도〉 1620년대 요민 관련 평안도 주요 지역

48) 『인조실록』 권6, 인조 2년 8월 25일(정미), 8월 26일(무신).

49) 동강진의 무역 활동에 관해서는 서원익, 앞의 논문, 124~130쪽 참조.

50) 『인조실록』 권7, 인조 2년 11월 2일(임자), 11월 21일(신미); 권8, 인조 3년 1월 11일(경신).

고 강계를 비롯한 압록강 중류의 내륙까지 확장되고 있었다. 특히 모문룡이 직접 청천강까지 내려가 둔전을 물색하고 빈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자, 조정에서는 구성과 태천 등 내륙 지역으로 그들의 둔전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했다. 가도를 벗어나 내륙에 횡행하는 한인들로 인해 임반지변과 같은 후금의 침공이 뒤따를 것과 더불어, 후금군이 쳐들어 올 경우 모문룡이 조선에 후금과 내통했다는 무함을 씌우리라 예상했기 때문이었다.<sup>51)</sup>

모문룡에 의지해 조선으로 건너왔지만 사실상 방치되었던 요민들 사이에서도 동강진에 대한 불만이 점차 쌓여갔다. 이에 따라 모문룡의 통제가 별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휘하 군사들끼리 충돌하는 자중지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동강진을 이탈하는 요민들도 나타났다. 삭주에서는 천총 黃重庫가 민가 약탈을 금단하는 모병을 공격했고, 참장 徐孤臣은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창성으로 이탈하여, 명 조정을 속이고 요민을 돌보지 않는 모문룡의 탐욕을 비난했다. 도사 白有學이 모문룡에 대한 반란을 도모하다 체포되었을 때에는 연루된 요민의 수가 2천 명이었다고 한다.<sup>52)</sup>

게다가 동강진의 위력이 덜 미치는 지역에서는 조선인들의 반격으로 해를 입은 요민들의 사례도 보고되었다. 평안도 벽동에서는 요민 8명이 조선인들에 의해 燒死했고, 황해도 황주까지 남하한 5명의 요민 역시 지방관의 형장으로 사망했다. 1625년(인조 3) 2월에는 의주부윤 이완이 조선 백성을 침략하던 모문룡의 부하 朱發時에게 곤장을 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陳繼盛 등 동강진의 장수들이 분개하며, 모문룡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51) 『인조실록』 권7, 인조 2년 10월 16일(정유), 12월 24일(갑진); 권8, 인조 3년 1월 17일(병인), 2월 9일(무자), 2월 12일(신묘); 권9, 인조 3년 6월 21일(정유).

52) 『인조실록』 권7, 인조 2년 11월 29일(기묘); 권8, 인조 3년 1월 12일(신유); 권9, 인조 3년 4월 11일(무자).

천조는 부모의 나라이고 조선은 자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변방 신하가 함부로 천조의 사람을 때렸으니, 이는 천조를 무시하고 老翁(모문룡)을 무시한 것입니다. 지난 만력 20년 왜구를 정벌하던 날, 조선에서 죽어간 천조의 군마와 소비한 재물이 몇 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신하가 과거의 은덕을 생각하지 않고, 노야께서 한 조각 땅을 빌려 산다고 하여 천조 사람들을 원수처럼 보며 제멋대로 구타함에 거리낌이 없으니, 노야께서는 그를 잡아다 뜻에 따라 조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sup>53)</sup>

위 인용문은 당시 모문룡을 비롯한 동강진과 요민들이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동강진이 조선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이런 즈음에 1625년 5월 무렵 명 조정에서 요민 송환에 관한 황제의 재가가 있었음을 알려왔다. 그러나 요민을 기반으로 세력을 유지하던 모문룡의 방해, 그리고 수십 만의 요민을 수용할 것에 부담을 느낀 등래순무의 반대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sup>54)</sup>

그러나 동강진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산동에서 가져온 곡식이 부족하자, 동강진의 장수들이 각각 3천 명을 이끌고 광산·정주·가산 등 청천강변까지 남하해 주둔했고, 조선 조정은 평안도의 군량미를 다 털어주고 경기·황해·강원과 삼남의 곡식까지 거둬들이며, 온 나라 양식의 절반이 요민에게 돌아간다고 한탄할 지경이었다. 결국 요민들이 청천강 남쪽까지 건너와 노략질하는 상황에 이르자, 조선 조정은 모문룡의 심

53) 『인조실록』 권8, 인조 3년 2월 27일(병오) “天朝乃父母之邦, 朝鮮爲子孫之國, 而麗地邊臣, 擅打天朝人, 是不有天朝, 不有老翁也. 往在萬曆二十年征倭之日, 天朝軍馬, 斃于朝鮮, 帑金芻糧耗費者, 不知其幾萬. 麗臣罔念已往之德恩, 以老翁借居一塊之土, 讐視天朝之人, 擅打不忌, 宜老翁拿致節制使, 任意處之.”

54) 『인조실록』 권9, 인조 3년 5월 1일(무신), 6월 29일(을사); 권12, 인조 4년 3월 26일(기사).

상치 않은 이상 행동을 주시하며 이조판서 김류 등을 동강진에 파견했다.<sup>55)</sup> 그리고 명 조정에 요민 철수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한편, 1626년(인조 4) 5월 성절사 쑤滉에게 북경에 가서 요민 송환 문제를 직접 협의하라 명하였다.<sup>56)</sup>

당시 명 조정 역시 모문룡이 錢糧만을 탐하며 가도에 웅크린 채 허장성세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sup>57)</sup> 이에 모문룡의 실상을 점검하고 동강진과 요민을 요동반도 끝자락의 旅順口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산해관 군문차관 趙祐를 파견했다. 그러나 모문룡은 石城島에 도착한 조우의 조선 입국을 가로막다가 살해했는데,<sup>58)</sup> 이는 자신의 군사적 기반인 동강진 및 인적·경제적 토대인 요민의 철수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조선 조정에 대해서는 인조 책봉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의 주둔을 원한다는 탄원을 명 조정에 보내도록 압박하는 한편, 명 조정에는 ‘조선이 두 마음을 가졌다’고 무함을 계첩을 보냈다.<sup>59)</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5월 조사 姜曰光 일행이 가도를 거쳐 서울에 당도했다. 그의 임무는 황자 탄생을 알리는 조서를 반포하는 것이었지만, 동강진의 동태를 점검하고 조선의 반역 여부를 조사하는 목적을 겸하고 있었다. 조선 조정은 강왈광에게 모문룡의 무함을 해명함과 동시에 요민의 등

55) 『인조실록』 권10, 인조 3년 12월 13일(정해), 12월 25일(기해); 권11, 인조 4년 2월 30일(계묘); 권12, 인조 4년 3월 23일(병인), 3월 26일(기사).

56) 『명희종실록』 권66, 천계 5년 12월 25일(기해); 『인조실록』 권12, 인조 4년 5월 5일(병오).

57) 『명희종실록』 권64, 천계 5년 10월 5일(경진) “竊謂文龍之意, 不過欲錢糧之濟, 皇上但設處有錢糧, 何愁發遣不速?”; 권68, 천계 6년 2월 25일(무술) “毛帥, 與朝鮮近, 與奴酋遠, 姑留以爲虛聲.”

58) 『인조실록』 권13, 인조 4년 윤6월 7일(정미); 권14, 인조 4년 8월 12일(신해), 8월 17일(병진); 권21, 인조 7년 7월 4일(정해).

59) 『인조실록』 권12, 인조 4년 4월 14일(병술); 권13, 인조 4년 6월 10일(신사), 14일(을유), 15일(병술), 16일(정해), 17일(무자).

주 송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강알광 역시 조선의 충순함을 인정하며 노약자를 데려갈 것을 약속했다.<sup>60)</sup>

하지만 동강진 이설 및 요민 송환에 관한 명 조정의 논의는 여전히 통 일되지 않았고, 반대 의견 또한 적지 않았다. 동강진을 철수할 경우 조선 이 후금에 복속될 우려가 있고, 5년간 평안도에安居하던 수십 만 요민을 동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sup>61)</sup> 더구나 모문룡에게 이설 여부 및 장소를 일임했기에, 이때의 송환 협상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sup>62)</sup>

모문룡은 자신의 세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명 조정과의 갈등을 무릅 쓰고 요민 송환을 저지했지만, 그렇다고 요민을 제대로 구출한 것도 아니 었다. 정묘호란 직전 요민의 숫자는 20~30만 명까지 급증했고, 조선과 명 조정의 식량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요민들은 줄곧 극심한 기아에 허 덕였다.

1626년 8월 성절사로 북경에 가던 김상헌은 동강진에 소속된 군사들

60) 『인조실록』 권13, 인조 4년 6월 10일(신사), 14일(을유), 15일(병술); 『명희종실록』 권76, 천계 6년 9월 5일(갑술) “翰林院編修姜曰廣, 兵科給事中王夢尹, 頒詔朝鮮, 便道詳閱海外情形, 歸陳八款, 內兵部覆議四款. 一曰遼民, 言遼民來歸者, 不啻十餘萬, 自長山廣鹿石城鹿獐等島, 各有安插, 卽自鐵山至朝鮮之安州麻布川大川等處二百餘里, 陸續不絕, 奈皮骨僅存, 枵腹待斃, 宜擇其壯者隸之行伍, 次則雜役屯耕, 或老弱有妻子願渡海入中國者聽.”

61) 『명희종실록』 권71, 천계 6년 5월 13일(갑인) “豊城侯李承祚言, 近閱邸報, 見有毛帥移鎮之議. 但鐵山一移駐, 則朝鮮孤弱, 爲奴所逼, 勢必兼併, 奴愈無顧忌矣. 况鐵山民兵, 共集七八十萬, 安居既久, 一旦議移, 恐姦民召亂, 禍生不測, 安可不長慮也.”; 권71, 천계 6년 5월 25일(병인) “薊遼總督閻鳴泰疏言, 臣接邸報, 見豊城侯李承祚一疏, 謂毛文龍不當移鎮, 然此非勳臣意也. 近有一種走利如鷺之徒, 視朝鮮爲奇貨, 借文龍爲赤幟, 乘波濤爲捷徑, 而微貴微賤, 虛往虛來, 是也. 恐文龍一移, 則壘斷俱絕, 故爲文龍遊說, 而實以營其自便之私, 勳臣熱心聽其娓娓, 遂不勝私憂, 過計落其術中而不知耳. 噫, 臣因是而重有感焉. 自我朝立國至今, 師旅之興, 何時蔑有? 然未有用兵之久, 糜餉之多, 而成功之難如東事者.”

62) 『인조실록』 권13, 인조 4년 7월 13일(계미); 권14, 인조 4년 8월 5일(갑진).

을 목도하고 그들의 참상을 기록한 시를 남겼다. 그 내용에 따르면, 본디 요양의 백성들이었던 그들은 수년간 후금의 치하에서 살다가 도주하여 모문룡에게 의탁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군사로 편입된 뒤에도 누더기를 걸치고 무기조차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굶주림에 시달린 나머지 산동의 곡식이 도착하기만 기다리며 매일 백여 명씩 굶어죽고 있었다.<sup>63)</sup>

요민 가운데서는 모문룡에 대한 원망을 넘어, 이제 그의 반역을 고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요동 유학 倪汝聽은 강왈광 일행에게 ‘모문룡이 후금과 결탁해 명을 배반하고, 서울을 점령한 뒤 산동으로 쳐들어 갈 계획’이라 밀계를 올렸고,<sup>64)</sup> 동강진의 장수 徐孤臣과 易承恩·崔天泰는 모문룡이 의주와 창성을 점거한 뒤 후금에 투항하려 한다고 조선에 알려왔다.<sup>65)</sup> 조선 조정은 모문룡의 반란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5천 명의 군사를 의주 일대에 배치하고 명 조정에 알려 토벌에 나서는 등 일전을 불사할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실제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선에서 선불리 명나라 장수 모문룡을 공격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sup>66)</sup>

모문룡의 방해와 명 조정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요민의 송환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요민들로 인한 피해는 점점 쌓여갔다. 막대한 식량 지원과 평안도 백성들의 피해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렇다고 모문룡을 무력으로 토벌하고 요민들을 쫓아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였던 것이다. 또한 기아에 시달리는 수십만의 요민을 방치하여 굶어죽게 놔두거나 소요를 일으킬 때까지 두고 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

63) 『청음집』 권9, 「新安步卒歌」 “步卒何貿貿，相逢新安城，身上衣百結，手中無寸兵。自言遼陽民，幾年陷腥塵，萬死脫虎口，籍名毛帥府。……山東紅腐百萬粟，日望登萊汎舟役，滄海茫茫帆影絕，一日溝渠百人骨。”

64) 『인조실록』 권13, 인조 4년 윤6월 7일(정미), 윤6월 11일(신해).

65) 『인조실록』 권14, 인조 4년 8월 13일(임자), 8월 14일(계축), 8월 19일(무오), 8월 21일(경신).

66) 『인조실록』 권13, 인조 4년 윤6월 12일(임자); 권14, 인조 4년 8월 21일(경신).



에 조익은 조정이 요민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우리나라에 나와 먹고사는 요민이 남녀를 합쳐 거의 20~30만 명에 이르는데, 모두 우리가 먹여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신이 이상길의 말을 살펴보니, 毛兵의 형세가 만약 양식이 계속 이어지면 변란이 없겠지만 이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변란이 있으리라 하니, 정세로 헤아려 보면 그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20~30만의 인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죽기만 기다리겠습니까? 펼쳐 일어나 난리를 일으킬 것이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그들이 변란을 일으키면 우리도 무기를 잡고 상대해야 할 것인데, 굶주린 사람들을 때려잡기는 쉬운 일이겠지만 저들이 갑자기 달려든다면 우리의 피해 역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 하물며 천조의 수십만 인구가 우리 땅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가만히 앉아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도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이 변란을 일으키기를 기다렸다 죽이는 것도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정상 그러할 뿐 아니라, 천조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sup>67)</sup>

평안도를 구제하는 계책으로도 요민을 내지로 옮기는 일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생각하기에, 이 하나의 계책이야말로 목전의 위급한 환란을 해소하고 수십 만의 목숨을 살리며, 신종 황제의 재조지은에 보답하고 천조의 신뢰를 얻어 천하에 인자하다는 명성을 떨치며, 나라 안의 곡식을 거둬들여

67) 『포저집』 권3, 「論西邊事宜疏-丙寅」 “遼民就食於我國者, 男女幾至二三十萬, 皆望哺於我國. 臣見李尙吉言, 毛兵形勢, 若糧食有繼則可保無變, 不繼則生變必矣. 以情勢度之, 此語誠然, 二三十萬人口, 豈於甘坐而待死, 其起而爲亂, 勢所必然. 生變之後, 須以兵戈待之, 飢餒之人, 撲滅必易. 然卒然奔突, 我之受害, 亦必不少. …… 況天朝數十萬人口, 飢餓於吾土地, 其死指日可待, 坐視其死, 至不可忍也, 待其爲變而殺之, 亦至不可忍也. 且非但情不可忍, 亦何以有辭於天朝乎?”

수송하는 폐단을 줄이고 평안도 백성을 보존할 수 있으니, 하나의 일을 거행하여 여러 부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 대저 요동의 평정은 쉽게 기약할 수 없고 동강진의 이설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요민들을 우리 영토 안에 머물게 하면서 무리를 줄이지 않는다면 그 폐단을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근을 계기로 그들을 분산시켜서 내지로 옮기는 계획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sup>68)</sup>

요민들의 기아와 이로 인한 작폐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조익은 요민들을 황해·경기 및 삼남 지역으로 분산하여 구휼할 것을 주장했다. 그 길만이 四海同胞의 유교 이념에 부합하는 인간적 도리일 뿐 아니라 명의 재조지은에 보답하고 명의 신뢰를 얻는 길이며,<sup>69)</sup> 현실적으로는 굶주린 요민들의 반란을 예방하고 동강진의 세력을 축소시켜 평안도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즈음 모문룡은 조선이 후금과 내통하며 자신들을 섬으로 몰아넣고,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내용의 계보를 여러 차례 본국에 보냈다. 그리고 조선이 것처럼 두 마음을 품게 된 이유로 요민의 작

68) 『포저집』 권3, 「(論西邊事宜)再疏」 “救濟此道之計, 亦無如移遼民也. 故臣竊以爲此一計, 非但紓目下危急之患, 可以活數十萬人命, 可以報神宗皇帝再造之恩, 可以取信於天朝而仁聞著於天下, 可以省國中聚斂轉輸之弊, 可以保存關西一道之民, 一舉而衆利附如此. …… 夫遼事之平, 不可易期, 毛營移陣, 亦不可必, 若久在吾境而不減其衆, 則其爲弊決不可支, 故莫如因此飢饉, 爲分其衆內移之計也.”

69) 『포저집』 권3, 「(論西邊事宜)再疏」 “夫民者同胞, 以天地大父母觀之, 則凡天下之民, 皆吾兄弟也. 故仁人之心, 以天地萬物爲一體也, 況人君爲父母宗子, 代天而理物, 則尤當以此存心也. 今者天朝數十萬赤子, 皆將死於吾土地, 使此人衆初不在我境, 則其死生存亡, 勢所不及, 既在吾地, 豈可坐視其死而不爲之救哉? …… 且壬辰之禍, 我國生靈, 幾盡於鋒刃, 賴天朝大恩, 驅賊渡海, 邦國再造, 至今東方之人, 生育長養, 君臣父子得安其所, 無非神宗皇帝拯濟之力也. …… 今活天朝數十萬將死之命, 此庶幾補報於萬一, 而其活之也亦不至甚難. …… 今能活得此衆, 則此後天朝賢我必深, 雖有讒間, 將不得行也, 此正取信於天朝一大機會也.”

폐를 지목했다.<sup>70)</sup> 이에 대해 조선 역시 모문룡에게 요민 구제의 책임을 물으며, 등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요민들이 조선으로 망명한 까닭은 목숨을 구하고자 함이었다. 貴鎭은 지금까지 그들을 구제하지 못하면서 이제 산동으로 돌아가 먹고 살도록 허락하지도 않는다면, 요민들의 죽음은 실로 귀진이 초래한 것이니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귀진을 위한 계책으로는 병사들만 남기고 백성들은 송환함이 상책이다. 귀진은 이같은 장대한 계책을 어찌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지 않는가?<sup>71)</sup>

정묘호란 직전 북경에 머물던 김상헌 역시 임박한 후금의 침략보다 모문룡의 무고 및 요민의 작폐를 해명하는 일이 급선무였고, 요민들로 인한 조선의 급박한 사정과 송환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명 조정에 호소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는 요민들을 헤아려 보면 수십만 명에 달하니, 촌마을로 흩어져 들어가 곳곳마다 짝 차 있는 탓에 주인은 2~3명이고 손님이 7~8명입니다. 처음에는 방을 빌려 살다가 중간에는 술단지를 빼앗고, 끝내는 아내 자들을 강간합니다. 인정이 이 지경에 이르니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자들은 처자식을 데리고 내지로 옮겨 가고, 강한 자들은 칼을 빼들고 어둠을 틈타 서로 죽이려 합니다. 모진의 약속이나 우리의 법령으로도 금할 수 없으니, 예로부터 이와 같은데 큰 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난이 처음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만의 화이지만, 난이 깊어진 뒤에는 천조 또한

70) 『청음집』 권9, 「兵部呈文-丁卯三月十三日呈禮部及登州撫院同」 “伏聞毛鎭塘報有云, 麗人恨遼民擾害, 暗爲奴賊奸細, 欲害毛鎭, 噫, 此何言也?”

71) 『인조실록』 권14, 인조 4년 10월 25일(갑자) “來歸遼民, 本爲求生之計, 而貴鎭既不能賑救, 若不許就食山東, 是遼民之死, 貴鎭實致之, 得無不安於貴鎭之心乎? 爲貴鎭計者, 莫如留其兵而送其民, 以爲長大之策, 貴鎭何不熟思而處之?”

어찌 홀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sup>72)</sup>

그러나 명 조정은 요민을 섬으로 철수시키고 등주에서 때맞춰 식량을 공급하겠다는 말로 조선의 쇠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수 만의 요민이 갑자기 귀국할 경우 야기될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sup>73)</sup>

결국 1627년(인조 5) 1월 후금은 동강진 제거와 더불어 요민 획득을 목표로 삼아 조선을 침공한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후금군은 개전 후 열흘 만에 의주를 거쳐 안주와 평양을 함락하고 임진강에 다다랐다. 이 과정에서 모문룡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요민에 불만을 품은 조선인들이 후금을 끌어들여 자신을 공격했다고 조선 조정에 항의했다.<sup>74)</sup>

그리고 3월 초 강화가 이루어지고 후금군이 철수하자, 평안도에서는 요민들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남아 있던 평안도 백성들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 탈출하던 조선인들을 학살한 뒤 후금군이라 보고하고 상을 받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또한 피난 떠난 조선인들의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는 등, 본격적으로 눌러앉을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당연히 전쟁이 끝난

72) 『청음집』 권9, 「禮部兵部呈文」 “目今遼民之方住小邦者, 計不下數十萬口, 散走村閭, 在處填滿, 主居二三, 客居七八. 始借房屋, 中奪糶糶, 終淫妻婦, 人情到此, 孰能堪之? 弱者携妻負子, 轉徙內地, 强者礪劍懷刃, 乘暗相圖, 毛鎮之約束, 小邦之法令, 所不能徧禁, 自古如此而未有不生大亂者也. 亂之初生, 小邦之禍也, 亂之既涵, 天朝亦豈獨無憂也.”

73) 『명희종실록』 권77, 천계 6년 10월 22일(신유) “先是, 兵部奉旨, 兩移咨朝鮮, 一則以毛文龍之奏, 言其國叛臣韓潤尹立義等密通奴酋, 令該國查確處分, 一則以朝鮮國王有刷還遼民之疏, 慮遼民逼鮮以開疑釁, 今鎮臣將在鮮, 遼人盡刷邊島, 登撫接濟之糧, 刻期發運, 而該國素勤忠款, 宜克有終, 仍量行賑救一二年, 以資屯牧.”; 『계곡집』 권22, 「論毛鎮事情奏本-丙寅」 “向者臣將此事情, 具奏陳請, 要之許多剝漢, 驅入中國, 或有難處之虞, 臣雖至愚, 亦豈念不及此? 只緣褊小之域, 事勢尤難, 屢冒宸嚴, 自訴窮急, 及見兵部覆題, 其辭意不啻委曲矣, 處分已定, 臣何敢更有干瀆?”

74)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2월 5일(임인), 2월 25일(임술).

뒤 집으로 돌아온 조선인들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다툼의 양상은 전쟁 전보다 극심하였다.

또한 전쟁 직전부터 요동을 탈출한 수백 명의 한인 관료들에게 관작을 수여하고 文廟를 세워 과거까지 실시하던 모문룡은 전쟁이 끝나자 용골 산성을 지키던 의병장 정봉수 등 조선인들에게까지 명의 관작을 제수하기 시작했다.<sup>75)</sup> 그리고 평안도 내륙의 조선인들을 섬으로 이주시켜 동강진에 편입시켰다. 청천강 이북 일대를 사실상 자신이 다스리는 명의 내지로 만들고자 시도했던 것이다.<sup>76)</sup> 이에 따라 1620년 이후 나타난 요민과 조선 백성들 사이의 갈등은 1627년 정묘호란 이후 명의 동강진과 조선의 평안도 공권력 사이의 충돌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 IV. 맺음말

1619년 사르후 전투 이후 본격화된 후금의 서진으로 말미암아, 요하 유역 한인들이 대거 압록강을 넘어 조선 영토로 피난하면서 요민 문제가 시작되었다. 1621년 후금의 심양·요양 점령 및 1622년 모문룡의 동강진 설치로 급격히 증가한 요민의 숫자는 순식간에 2만을 넘어 1623년 인조반정 무렵 10만, 1627년 정묘호란 직전에는 20~30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75) 『명희중실록』 권76, 천계 6년 9월 5일(갑술) “毛文龍復上言, 遼土蹈海就臣者, 數年間不下二三百餘名, 臣給以衣冠資斧, 又立文廟, 權設學政以董之. 前冊封朝鮮使臣, 至鐵山, 課試諸生, 一一爲之品題. 乞照天啓五年, 遼東巡撫喻安性具題, 仍准遼土就省科舉, 或附山東, 或在北京, 一例應試.”

76) 정묘호란 이후 모문룡의 청천강 이북 점령과 관련하여, 강희 연간 간행된 『海國見聞錄』에서 가도를 청의 동단으로 서술한 점에 좀더 주의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정병철, 앞의 논문, 167쪽 참조.

조선 조정은 요민들이 후금과 내통하거나 후금의 월경 침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평안도 백성들에 대한 침략 및 굶주림으로 인한 소요를 우려하며, 유입 초기부터 이들을 산동성 등주로 송환하는 방침을 정하고 명 조정과 협의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명 조정 역시 자국민인 요민을 데려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요민을 기반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유지하려던 모문룡의 방해, 그리고 동강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고 요민 귀환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했던 명 조정의 복잡한 계산 속에서, 정묘호란 때까지 요민의 송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1627년 후금이 동강진 제거와 요민 획득을 목표로 일으킨 정묘호란이 끝난 뒤, 요민을 둘러싼 조선과 명·후금의 관계는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후금은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의 天聰 연간이 시작되면서 형제의 맹약을 맺은 조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요민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리고 후금과의 세력 경쟁에서 수세에 처한 명으로서는 더욱 동강진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점차 요동 일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요민 문제를 모문룡에게 일임하게 되었다.

더구나 1629년 모문룡이 요동경략 袁崇煥에 의해 처형되면서, 요민의 명운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구심점을 잃은 동강진에서는 모문룡의 부하들 사이에서 반란이 거둬되었고, 요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과 통제조차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요민의 유리와 작폐 또한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조선 조정은 요민에 대한 무력 토벌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이같은 정묘호란 이후 병자호란까지 요민의 동태와 그에 대한 조선의 대책에 관해서는 후속 논문을 통해 이어 살펴보고자 한다.

(2022.07.02. 투고 / 2022.07.25. 심사완료 / 2022.07.29. 게재확정)

[Abstract]

### **The Perception of Liaodong Refugees and the Doctrine of Repatriation in Choseon Dynasty from 1620 to 1627**

Woo, Kyungsup

After the Battle of Sarhu in 1619, as the Manchus advanced westward, many Chinese living near Liaohe fled over the Yalu River to Choseon territory, and the issue of Liaodong Refugees began. The number of Liaodong Refugees, which increased rapidly due to the occupation of Shenyang and Liaoyang in 1621 and the establishment of Dongjiangzhen by Mao Wen-long in 1622, quickly exceeded 20,000. 100,000 by the time of King Injo's Rebellion in 1623, and 200,000 to 300,000 just before the 1st Invasion of Manchuria in 1627. It is not easy to believe this number as it is on the record, but it is roughly certain that at least nearly 100,000 Chinese have flowed into Pyongan Province.

The Choseon Dynasty was concerned that Liaodong Refugees could communicate with the the Manchus or cause invasion of the Manchuria, and they would plunder the local people. Therefore, from the beginning of the influx of Liaodong Refugees, Choseon Dynasty decided to repatriate them to Dengzhou, Shandong Province of Ming, and continued consultations with Ming Dynasty, In addition, the Ming Dynasty also agreed in principle to repatriate Liaodong Refugees, its own citizens, and there were two opportunities to complete repatriation when

Yang Zhi-yuan and Jiang yue-guang were dispatched. However, in the complicated calculation of the Ming Dynasty, which valued the strategic value of Dongjiangzhen, and the obstruction of Mao Wen-long, who tried to build and maintain his power based on Liaodong Refugees, little repatriation of Liaodong Refugees was accomplished.

□ Keyword

Liaodong Refugees(遼民), Mao wen-long(毛文龍), Dongjiangzhen(東江鎮), Pyongan Province(平安道), Doctrine of Repatriation(送還論)



## [참고문헌]

## 1. 사료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明神宗實錄』, 『明熹宗實錄』, 『清太祖實錄』  
『月沙集』(李廷龜), 『清陰集』(金尙憲), 『浦渚集』(趙翼), 『江漢集』(黃景源)

## 2. 저서

田川孝三, 『毛文龍と朝鮮との關係について』, 彙文堂書店, 1932.  
권내현, 『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2004.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혜안, 1999.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정병철, 『‘天崩地裂’의 시대, 明末清初の 華北社會』,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한명기, 『역사평설 병자호란』 1, 푸른역사, 2013.

## 3. 국외 저서 및 논문

김덕진, 「17세기 전반 후금의 요동진출과 요민의 조선이주」, 『역사와 교육』  
14, 역사와 교육학회, 2012.  
김두현, 「遼東支配期 누르하치의 對漢人政策」, 『동양사학연구』 25, 동양  
사학회, 1987.  
劉春蘭, 「明·清交替期 漢族의 朝鮮移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1997.  
박현규, 「명 監軍 梁之垣 朝鮮出使 시기 해상활동에 관한 분석」, 『한중인  
문학연구』 39, 한중인문화회, 2013.

- 서원익, 「明清交替期 東江鎮의 위상과 경제적 기반」, 『명청사연구』 53, 명청사학회, 2020.
- 스즈키 카이, 「劉興治와 朝鮮과의 관계에 대하여」, 『만주연구』 19, 만주학회, 2015.
- 장정수, 「17세기 전반 朝鮮과 後金·淸의 國交 수립 과정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0.
- 정병철, 「明末 山東과 遼東間의 交流와 그 性格」, 『명청사연구』 3, 명청사학회, 1994.
- 정병철, 「明末 遼東 沿海 일대의 '海上勢力」, 『명청사연구』 23, 명청사학회, 2005.
- 조일수, 「인조대 대중국 외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 허태구, 「張晩의 대외정세 인식과 대중국 외교현안 대응」, 『대구사학』 146, 대구사학회, 2022.